

## 01-2. Subepithelial connective tissue graft for root coverage

김민경\*, 구기태, 김태일, 설양조, 이용무, 구영, 류인철, 정종평

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주과학교실

### 연구배경

치은퇴축은 칫솔질로 인한 외상이나 세균성 치태에 의한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며, 치아의 위치, 골 열개나 천공, 소대부착 등이 기여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. 이러한 치은퇴축은 일반적으로 심미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. 상피하 결합조직 이식술은 치근피개를 위해서 사용되는 가장 예지성 높은 외과적 술식으로 주위치은과의 색조조화나 높은 성공률로 인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. 치은퇴축이 있어도 치간부 연조직이나 골 소실이 없으면 100%에 달하는 성공률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지만, 보다 높은 성공률과 환자의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 Langer & Langer의 original technique을 수정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된 바 있다.

### 연구재료 및 방법

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을 내원한 환자 중 치은퇴축을 보인 환자를 대상으로 치근피개를 시행하였다. 다수 치아 증례와 단일 치아 증례에서 vertical incision을 준 conventional method와 수직절개를 주지 않아 측방으로부터의 혈행 공급을 방해하지 않도록 고안된 modified technique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.

### 연구결과

상피하 결합조직 이식술을 사용해 치근피개를 시도한 모든 증례에서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났고, 수직절개를 주지 않은 경우 임상적으로 보다 빠른 치유와 양호한 심미적 결과를 보였다.

### 결론

최근에 제안된 vertical incision을 사용하지 않은 술식을 사용함으로써 conventional technique과 같은, 혹은 더 양호한 심미적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봉합시간의 단축 등으로 인한 치료 소요 시간의 감소와 같은 장점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.